

조봉암의 평화사상

-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의 고찰 -*

김태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명인 조봉암의 정치활동과 사상을 갈통의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란, 전쟁·구타·감금 같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와 같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에까지 반대하는 개념을 뜻한다. 실제 일제시기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봉암은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분단체제의 구조적 폭력에 저항했던 적극적 평화운동가로 평가하기에 손색없는 정치활동을 보여주었다. 조봉암은 일제시기 제국주의 폭력에 대한 경험과 이해 속에서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초대 국회의원이자 헌법기초위원으로서, 그리고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당대의 차별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헌법상의 진보적 경제조항의 정초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고, 농지개혁의 현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차별에 저항했던 적극적 평화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게다가 그는 좌우합작과 남북 평화통일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는 평화의 달성을 위해 ‘통합(integration)’의 가치를 강조했던 갈통의 적극적 평화론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제어: 조봉암, 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제국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통합, 평화통일.

* 이 연구는 201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머리말

죽산(竹山) 조봉암(曹奉岩, 1899~1959)은 195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명이다. 그는 1952년과 19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연속으로 이승만 다음으로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정치인이었다. 제헌국회의 의원이자 헌법기초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초를 만든 인물이기도 했다. 인구 구성의 80%가 농민이었던 농업사회에서 초대 농림부장관을 맡아 구 지배체제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농지개혁을 선도했다. 그리고 1956년 대선에서 대규모 민중의 지지를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로 1950년대 극우반공체제의 대한민국에서 평화통일론을 당론으로 내세운 진보당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끝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조봉암이 살았던 20세기 전반기는 한국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 중일전쟁(1937~1945), 태평양전쟁(1941~1945), 한국전쟁(1950~1953)과 같은 전쟁들이 한국인들의 직접적 연루 속에서 지속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학정과 수탈, 해방 이후의 제주 4·3항쟁과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전반기의 한반도 거주민들은 역사 속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세기를 힘들게 버티며 살아야만 했다.

조봉암은 위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냉전기의 양극적이고 폭력적인 질서에 지속적으로 저항했던 대표적인 평화운동가이자 평화사상가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엄혹했던 극우 반공체제의 이승만 정권 하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봉암 평화사상의 선도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북진을 통한 무력통일론이 정부의 공식적 통일론으로 운위되던 시절에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평화통일론은 그 자

체로 당시에는 위험한 담론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조봉암은 ‘피해 대중’을 위한 정치, 차별 없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건설 등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는데, 이 같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담론은 적(敵)과 아(我)를 분명하게 구분했던 1950년대 극우반공적 ‘전쟁정치’¹⁾ 하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했던 ‘평화정치’의 목소리였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조봉암에 대해서는 이제껏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정태영과 박태균은 주로 조봉암과 진보당을 ‘민족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파악하면서, 그 이념과 조직 과정, 활동 내용 등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고, 서중석은 진보당의 창당 과정과 평화통일론, 사회민주주의론 등을 광범하게 다루면서 ‘피해 대중’이라는 진보당의 사회적 기반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했으며, 윤상현과 박진영은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의 계통적 형성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 모든 연구들은 조봉암의 민족주의적이고 사회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데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²⁾

이 글은 민족운동가이자 사회민주주의자였던 인간 조봉암을 평화사상가이자 평화운동가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이래 평화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갈통(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조봉암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갈통은 현대 평화연구와 평화사상의 토대를 구축한 대표적 학자로서, 1964년 Journal of Peace Research 창간호를 통해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개념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연구자이다. 당시 그는 소

1) 김동춘, 『전쟁정치』 (서울: 길, 2013).

2) 박태균, 『조봉암연구』 (창작과비평사, 1995);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후마니타스, 2006);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하)』 (역사비평사, 1999); 윤상현, “조봉암(1899-1959)의 정치활동과 사회민주주의사상,” 『한국사론』, 52호 (2006); 박진영,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론,” 『대구사학』, 123집 (2016).

극적 평화를 “폭력 부재, 전쟁 부재(absence of violence, absence of war)”의 상태로, 적극적 평화를 “인간 사회의 통합(integration of human society)”의 상태로 성격 규정했다.³⁾

그는 ‘폭력(violence)’ 개념 또한 직접적 폭력(direct violence),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 등의 개념으로 세분화하면서, 소극적 평화는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로,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이자, 정의와 조화와 평등이 광범하게 퍼져 있는 상태로 성격 규정했다. 즉, 그는 소극적 평화를 “주요한 인간 집단 사이, 특히 국가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민족 사이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이 부재한 상태”로 성격 규정했고, 적극적 평화를 “단순한 폭력 부재의 상태를 넘어서 세계 공동체 내부의 모든 좋은 가치들, 특히 인간 집단들 사이의 협력(cooperation)과 통합(integration)의 동의어”로 간주했다.⁴⁾ 갈통에게 평화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등과 같은 간접적이고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폭력까지 극복된 상태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적극적 평화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통합을 “두 개 이상의 행위자가 새로운 하나의 행위자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면서, 평화 연구에서 폭력의 부재라는 프레임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화, 협력, 통합 등과 같은 적극적 개념을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⁵⁾

3) Johan Galtung, “An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 Issue 1 (1964), p. 2.

4) Johan Galtung, *Theories of Peace: A Synthetic Approach to Peace Thinking*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1967), p. 12.

5) 갈통의 ‘통합’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자세하다.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Issue. 4 (1968).

이상과 같은 갈통의 적극적 평화론은 조봉암의 민족해방운동론, 사회민주주의론, 평화통일론 등을 이해하는 데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조봉암은 일제시기 제국주의의 폭력에 직접적으로 저항했던 조선의 대표적인 공산주의 운동가 중 한명이었다. 본문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그를 일생의 운동가이자 사상가로 이끈 직접적 원인은 일제의 폭력이었다. 그 폭력은 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고문이나 오랜 감금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민족적 고난의 원인이 된 일제의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같은 구조적 폭력일 수도 있다. 또한 조봉암은 해방 이후에는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좌우합작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공산주의의 압제도, 자본주의의 착취도 동시에 거부하고 저항했다. 또한 분단체제를 통해 개인적 영리를 독점하던 세력들에 저항하여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 이 같은 활동은 갈통의 평화사상의 핵심 개념인 인간 사회의 통합으로서의 적극적 평화의 갈구와 실천에 다름없었다.

II. 조봉암 평화사상의 형성 과정(일제시기~해방직후)

1. 일제의 직접적·구조적 폭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주의의 수용

조봉암은 1899년 인천시 강화의 시골마을에서 사남매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다. 그는 유소년기 자신의 가정에 대해 “구차하기는 해도 평화스러웠”고, “아버지께서는 거의 절대적인 평화주의자”였다고 회고했다. 천

성적으로 폭력을 싫어했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조봉암은 “자유로운 가정 분위기 속에서” “구김살 없이 의젓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굉장한 “장난꾼”으로 묘사하면서 다양한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 같은 자유분방함과 명랑함이 일제시기와 냉전기의 폭압적 상황 속에서도 자기 소신을 겁 없이 내세울 수 있었던 기질적 바탕을 형성했는지도 모르겠다.⁶⁾

조봉암이 사상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계기는 1919년의 3·1운동을 통해서는였다. 스무 살의 청년 조봉암은 강화에서 유봉진의 지도하에 “철저한 평화적 시위”를 펼치다가 독립선전문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형무소에 투옥된 이후에도 감옥 내 만세 시위를 전개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응당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절”할 정도의 혹독한 체벌과 고문으로 이어지곤 했다.⁷⁾ 조봉암은 1년의 수감생활 직후 YMCA 중학부에 들어가서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YMCA 대동단사건의 연루자로 오해받아 평안남도 경찰부에서 또 다시 혹독한 고문을 감내해야만 했다.⁸⁾ 조봉암은 개인의 사회적 가치관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21살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이라는 거대한 힘과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것이다.

당시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이 그 정점에 달해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876년부터 1915년까지 세계 육지 면적의 1/4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새롭게 복속되어 재분배되었고, 1914년부터 1918년까지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장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유럽 제

6) 조봉암, “내가 걸어온 길,” 『희망』, 2, 3, 5월호 (1957), 정태영 외 편,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세명서관, 1999), pp. 325~326.

7) 위의 글, pp. 330~332.

8) 『동아일보』, 1920년 6월 18일자; 위의 글, pp. 333~335.

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비유럽인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폭력을 ‘개화의 사명’이라는 고상한 목적으로 포장했고, 일본 제국주의 또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침략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특히 더 노골적인 폭력성을 보여주었다. 3·1운동 이전 시기까지 일제의 소위 ‘무단통치(武斷統治)’는 물리적·직접적 폭력 장치를 통해 지배를 관철하는 체제였다. 육·해군 대장 출신의 조선총독부 총독은 권력 견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제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력 장치로서의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는데, 헌병경찰은 사법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선인에게 벌금, 태형, 구류 등의 사법적 처벌을 개인적으로 가할 수 있었다. 조선인에 대한 개인적 폭력 행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다.⁹⁾ 일제는 제도 자체를 통해 조선을 강압적·폭력적·독재적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약관의 조봉암은 이 같은 압제와 폭력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젊은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육체적 고문 또한 개인의 폭력 인식과 평화사상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봉암 스스로 묘사한 고문의 장면은 실로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소위 “주릿대 방망이에 학춤을 춘다”는 고문은 그의 두 팔을 뒤로 묶고, 그 묶은 손목을 끈으로 매어서 천정으로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가혹행위를 지칭했다. 그는 의자

9)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도 당대 조선에 가해진 외압이 여타 식민지국가보다 훨씬 더 폭력성을 띠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적 성장이 미숙했던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개항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하원호, “근대사회성격론,” 『한국사 길잡이(하)』 (지식산업사, 2008), p. 14.

위에서 현대나 죽도로 마구 두들겨 맞기도 했고, 엉덩이를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고문이 15일 내내 이어졌다고 한다.¹⁰⁾ 실제 1910년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해진 일제의 혹독한 고문의 사례들은 조봉암의 묘사가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¹¹⁾

젊은 날의 혹독한 육체적 고문의 경험은 개인사(個人史)에서 의외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제국주의, 국가, 폭력, 평화 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장 아메리(Jean Améry)는 자신의 저서 『죄와 속죄의 저편』을 통해, “고문은 한 인간이 내면에 간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며, “나의 모든 개인적 체험을 넘어 제3국에서는 고문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핵심이었다”고 역설했다.¹²⁾ 환연컨대, 조봉암의 몸을 덮친 육체적 고문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닌, 일제의 본질적 속성을 보여주는 ‘핵심’일 수 있으며, 조봉암 또한 제국주의의 ‘직접적 폭력’으로서의 고문의 경험을 통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런 변화가 발생했다. 조봉암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과거와는 “전연 판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상에 대한 눈이 떠졌고 애국심에 불타게 됐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자 했고, “안 하고는 못 배기겠고 몸살이 날 지정”이 되었다.¹³⁾ 그래서 그는 홀로 호랑

10) 조봉암, “내가 걸어온 길,”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pp. 333~335.

11) 1911년 105인사건 당시 일제는 민족운동가들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에 박기, 널빤지에 못을 박아 늘게 하기,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인두와 담뱃불로 지지기, 거꾸로 매달고 코에 물 붓기 등의 무자비한 고문을 가했다.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일지사, 1990).

12) 장 아메리 저, 안미현 역, 『죄와 속죄의 저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길, 2012).

13) 조봉암, “내가 걸어온 길,”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p. 335.

이 골로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1921년 도쿄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조선인 청년들과의 교류와 방대한 독서를 통해 사회주의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불세비즘, 페이비언주의 등과 같은 온갖 부류의 사회주의 사상이 풍미하던 시기였다. 1920년경 일본에 머물던 980여 명의 조선인 유학생들 대부분은 당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아나키즘이나 공산주의 관련 사상단체에 몰려 있었다.¹⁴⁾ 조봉암도 중앙대학 전문부 정치과에 적을 두고, 이 같은 일본 유학생들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관점에서 '제국주의 폭력'의 본질에 대해 자세하게 해설해주고 있었다. 조봉암은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던 과정에서, "이러한 진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했고 통분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제국주의 폭력에 직접적으로 맞서고자 사회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사회주의자가 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로 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도 같은 침략과 민족적 수탈이 어째서 생기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어째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살게 되었는가도 알게 되었다. (...)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호사할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¹⁵⁾

조봉암의 결심은 즉각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1921년 아나키즘 계열의 흑도회를 조직하는 일에 참여했고, 무정부주의자 박열 주도 하의 박살단에서도 활동하며 사회주의자로 행세하기 시작했다.¹⁶⁾ 그러나 그 자

14) 김명섭, "흑도회의 결성과 활동(1921~1922)," 『사학지』, 31호 (1998), pp. 479~484.

15) 조봉암, "내가 걸어온 길,"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pp. 337~338.

16) 윤상현, "조봉암(1899~1959)의 정치활동과 사회민주주의사상," p. 133; 김학준,

신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 활동은 “관념적 유희”에 머무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모든 면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이 짙었던 아나키즘에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조봉암은 현존체제의 파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볼셰비즘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볼셰비즘이 일제의 조선 침략에 반대하여 조선인 항일운동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조봉암은 급속히 볼셰비즘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조봉암은 1922년 8월 서울로 돌아왔고, 10월에 러시아로 떠났다. 통합된 단일의 조선공산당 창당을 위해서였다.¹⁷⁾

이후 1927년까지 제1차 조선공산당 조직 활동에서 조봉암은 완전한 그 핵심적 인물로서 활약했다. 그는 1924년 조선공산당의 조직적 기초로서 조선노동총동맹, 조선청년동맹, 화요회 등을 발족시켰고, 1925년 4월 17에는 서울에서 김재봉을 책임비서로 하는 조선공산당 창당했고, 다음 날에는 박현영을 책임비서로 하는 고려공산청년동맹을 발족시켰다.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의 감사위원과 고려공산청년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두 조직에서 각각 중앙기관을 선출하는 3인 전행위원회 위원으로 동시에 선출된 사람은 조봉암뿐이었다. 당시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을 말해준다.¹⁸⁾

이후 조봉암은 모스크바와 상해 등의 지역을 오가며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32년 11월 상해에서 검거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한 후 1939년 출옥했다. 1926년 조봉암은 제1차 조선공산당 창립당원으로서 「조선공산당선언」을 통해 자신의 공산당 활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조선을

“진보당 평화통일노선의 재평가,”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 전집』, 6권 (세명서관, 1999), p. 178.

17)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청계연구소, 1986), pp. 396-398.

18) 김학준, “진보당 평화통일노선의 재평가,” p. 181.

절대로 해방한다는 것으로써 당면의 과업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¹⁹⁾ 1919년 3·1운동 참여 이래 지속적으로 일제의 폭력에 저항하여 ‘조선의 해방’을 제일의 과업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해방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조봉암은 일제의 폭력을 상징했던 형무소에서 무려 7년이나 장기 복역하며 개인적인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²⁰⁾

2.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과 ‘제3의 길’의 선택

조봉암은 1945년 1월 해외와 연락했다는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재구금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았다. 일제시기 조선공산당 창당의 중심에 있었고, 일제 감옥에서 해방을 맞은 인물이라면 의례히 해방 후 정치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만했다. 그러나 조봉암은 중앙정계 활동 대신 인천 지역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결성 등에만 참여했다. 그의 일제시기 경력을 놓고 보면 사실상 은둔에 가까운 활동이었다.

1946년 조봉암은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내가 양심적으로 진실로 죄로 생각하는 것은 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혁명가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적 양심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자들이 동지를 속이고 계급을 속이고 뻔뻔히 군중 면전에 나타나서 꺼떡대는 것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²¹⁾ 그는 아마도 1939년 출소 이후 1945년 재구금 되기까지 일제말의

19) “조선공산당선언,” 『불꽃』, 제7호, 1926년 9월 1일.

20) 형무소의 생활은 그 자체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제 폭력과 사투였다. 조봉암은 일제 감옥 생활에 대해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많다”고 단언했다. 조봉암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자세하다. 조봉암, “나의 옥중 생활기: 눈물겹고도 감명 깊은 혁명가의 담담한 회상록,”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세명서관, 1999), pp. 503~519.

여러 해 동안 인천 비강조합(枇糠組合)에서 그저 자신의 생계를 돌보며 비루하게 살았던 이력에 대해 이렇듯 자기반성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일제 감옥 안에서 해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말기 약 5년 동안의 공산당 활동 부재에 대해 부끄럽게 여겨 중앙정치 활동을 삼갔던 것이다.

그런데 조봉암이 박헌영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던 앞의 서한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CIC에 의해 강제적으로 압수당한 후 여러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되어 조봉암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 이를테면 『동아일보』는 조봉암의 서한이 “공산당의 무기력, 종파적, 봉건적인 점을 들어서 비판을 가하는 등, 독자 여러분의 참고할 점이 만키로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는 편집자의 소개문을 첨가해서 3회에 걸쳐 조봉암의 편지를 연재했다.²²⁾ 실제 조봉암의 편지는 ‘① 민족 통일전선 및 대중투쟁 문제와 그 운영에 대해서, ② 당 인사 문제에 대해서, ③ 반중앙파에 대해서, ④ 나 자신의 비판’ 등으로 구성된 장문의 조선공산당 비판문이자 자기비판문이었다. 조봉암은 신문에 등장한 자신의 편지가 대체로 윤곽은 같지만, “고의로 문구를 개악(改惡)하고 없는 것을 써넣은 것도 있다”고 말하면서 분노했다.²³⁾

이 편지의 실제 작성 시점은 1946년 3월경이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조봉암은 공산주의 노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 “나 자신이 좋은 불세비키가 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박헌영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서한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된 후 약 한 달 뒤인 6월 22일, 조봉암은 인천 도림동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시민대회장과 여러 관

21) 『현대일보』 1946년 5월 15일자.

22) 『동아일보』 1946년 5월 7일자.

23) 『현대일보』 1946년 5월 15일자.

공서, 신문사 등에 사실상의 전향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전향을 공식화했다. 그는 전향의 이유로 “공산당이나 민주위원의 독점 정부”가 아닌 “통일된 정부”의 수립이 필요하고, “지금 공산당과 같이 소련에만 의존하고 미국의 이상을 반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노동계급의 독재나 자본계급의 전제를 반대한다”는 문장으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²⁴⁾

그런데 이 성명서는 조봉암이 6월 11일 인천CIC에 검거되었다가 6월 22일 석방된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정황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²⁵⁾ 발표 방식도 좌익 진영의 대규모 행사장과 신문사 등에 성명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대량 살포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 내용이 미군정 후원하의 민주위원을 공산당과 같은 수준에서 비판하고, 미국식 자본주의의 무조건적 수용을 반대하는 일종의 ‘제3의 길’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정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전향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 스스로도 “독점자본가를 위해서 또는 모기관의 조종으로 일할 사람이라고 믿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계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²⁶⁾ 일제의 모진 고문과 오랜 감금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았던 조봉암이 미군정의 수일의 언어적 설득만으로 갑자기 전향을 발표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박헌영에게 보냈던 ‘개인적’ 편지의 공산당 비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봉암의 사상적 전환은 일제시기부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그 자신의 조선공산당 정책—소련 편향적 정책—에 대한 깊은 실망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24) 『동아일보』 1946년 6월 26일자.

25) 『동일일보』 1946년 6월 25일자.

26) 『대중일보』 1946년 7월 30일자.

이후 조봉암은 비소비미(非蘇非美)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짙은 중도적 ‘제3의 길’을 일관되게 견계 된다. 1946년 8월 조봉암은 남북한의 지배세력으로 급부상한 극우와 극좌적 세력을 다음과 같이 동시에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시대도 국정도 고려 못하고 무산계급 독재를 꿈꾸며 그의 영도권이 아니면 전민족의 분열도 불원하는 태도를 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조선에 있어서는 전연 사회적 조건이 없는 자산계급 전정(專政) 즉 중국 국민당식 자산계급 전정을 꿈꾸며 인민의 위에 군림하여 팻쇼적인 정권을 삼으려니가 필연적으로 반민족적인 민족분열적인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²⁷⁾

조봉암은 민족의 통일과 독립이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협력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가 이러한 신념 아래 1946년 8월 말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당연한 순리적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²⁸⁾ 미군정은 1946년 12월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출범시키고, 조봉암에게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조봉암은 미군정의 요청을 거절한 후 직접 중도세력의 조직화에 나서 1947년 3월 조선민주주의독립전선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조봉암의 중도노선은 좌·우익은 물론 그의 공산주의 경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중도세력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신의 제3의 길을 현실정치에서 본격적으로 펼 수 있는 실질적 계기는 오히려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이후에 주어지게 된다. 김구의 한독당을 비롯한 중도세력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초기의 현실정치 참여를 거부한 상황 속에서, 조봉암의 중도노선은 당대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이 극우 반공주의적으로 극단화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

27) 『대중일보』 1946년 8월 11일자.

28) 『미군정 정보보고서』, 3권 (일월서각, 1986), p. 213.

Ⅲ. 적극적 평화론의 현실적 전개(정부 수립 이후)

1. 사회민주주의적 경제 정책의 법제화와 현실적 추구

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5·10선거를 앞두고 조봉암은 “김규식 등 여러 선배에게는 총선거에 참가함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았다.²⁹⁾ 현실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의 설득은 실패했다. 그는 단독정부 반대 세력의 비난을 감수하며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조봉암은 일제시기 유력한 공산주의자라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천시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에 성공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했던 비합법적 투쟁가가 현실정치에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분단되긴 했지만 해방된 조국의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조봉암에게 커다란 희열을 안겨주었다. 그는 “확성기 달린 테이블 앞에서 국사(國事)를 말할 수 있었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찬성의 거수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다. 그에게 의사당은 “둘도 없는 활동무대요 낙원”이었으며, “하루라도 떠나고 싶지 않고 언어 이상으로 국회가 사랑”스러웠다.³⁰⁾ 그는 일제의 감옥이나 인천 비강조합에서의 은둔적 삶 대신, 해방된 조국에서 민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현실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29) 조봉암, “나의 정치백서,” 『신태양』, 5월호 (1957)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p. 391.

30) 조봉암, “5년간의 의회생활,” 『국회보』, 제3호 (국회사무처, 1953), pp. 5-7.

조봉암은 국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했다. 그 대표적 예로는 헌법기초위원으로서의 활약상을 들 수 있다. 국가 수립기였던 당대 시점에 모든 법률의 기초를 이루는 헌법의 기본적 내용과 형식을 만드는 일은 실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헌법의 초안은 대부분 헌법 문제에 관한 당대의 일인자인 유진오의 구상으로 나온 것이었으나, 그 최종 산물은 여러 다양한 성격의 정치인들 사이의 타협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서 조봉암은 민주주의 문제와 함께, 주로 생활의 기본적 수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토지개혁 등과 같은 ‘경제조항’의 정초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실제 그가 헌법기초위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개진하여 어떤 성과를 획득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부재하다. 그러나 1948년 8월에 발표된 조봉암 개인의 경제 및 노동문제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자료는 존재한다. 조봉암은 이 글에서 당대 노동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그의 ‘제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노동문제에 있어 우리가 최초로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차별 없는 세계관이고, 인생관이다. 인간을 하나의 노예로 만들지 말 것이며, 또한 인간이 자본의 제왕이 되지 못하게 하며, 각 개인이 국가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모든 문제는 일체의 영역에 있어 **아무런 정치적 계급적 권력적 차별이 없는 공동의 자유와 권리를 향수하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 그러나 노동문제 해결에 있어 이러한 것은 하나의 이념에 불과하다. 이념만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또한 노동문제이다. 이념은 그것이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문제와 같은 것일 때, 그것은 **반드시 정책화되고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인간을 동등히 바라보아도 무자본가는 자본가에게 노예가 되고 무권력자는 권력자에게 굴복치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31) 임흥빈, “죽산 조봉암은 왜 죽어야했나,” 『신동아』, 1983년 3월호, p. 132.

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책으로 방지하고 제도로서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평등한 인생관을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로서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 이것은 꼭 중대하고도 곤란한 문제이다. (...) 우리는 급진적으로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³²⁾ (강조는 인용자)

조봉암은 이 글을 통해 일제시기 이래 자신의 사회주의적 민중관과 노동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반면에 그 같은 현실의 ‘노동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 내에서 ‘정책화’, ‘제도화’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급진적으로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³³⁾(강조는 인용자)는 제헌헌법 제86조의 토지개혁 관련 조항은 노동문제의 제도화를 추구했던 조봉암과 같은 헌법기초위원의 주도적 주장에 의해 관철되었을 것이다.

조봉암은 단순히 헌법기초위원으로서 토지개혁의 법률적 제도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농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포착하게 되었다. 당대 인구 구성의 절대다수가 농민이었던 농업사회에서 농림부 장관은 권력의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토지개혁을 진두지휘해야만 하는 인물이었다. 당시의 토지개혁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배체제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정치·사회적 변혁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승만은 이 막중한 업무를 일제시기 조

32) 조봉암, “노동문제의 이념과 정책,” 『대호(大湖)』, 1948년 8월호, pp. 63~64(『죽산 조봉암 전집』, 1권, pp. 47~48).

33) 유진오, 『憲法解義』(명세당, 1949), p. 181.

선공산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조봉암에게 맡겼던 것이다. 파격적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이승만의 조봉암 선임은 그의 정치적 의도의 반영이었다. 이승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토지개혁의 실시가 손해될 일이 없었다.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국부(國父)를 꿈꿨던 이승만에게 토지개혁은 좌우 대립을 넘어 광범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고, 제주 4·3항쟁이나 여순사건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단기간에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장치였다. 당대의 미국 또한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토지개혁을 최대한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이 같은 토지개혁의 강행을 위해 지주 계층이 중심을 이룬 한민당 계열의 인물에게 농림부장관을 맡기지 않고, 헌법기초위원회 등에서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조봉암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봉암과 그의 비서 이영근의 회고에 의하면, 조봉암은 몇 차례 사양 끝에 이승만의 실질적 개혁 의지를 확인한 후 농림부장관의 직임을 맡았다고 한다.³⁴⁾

당시는 1946년에 실시되었던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에 대응하여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론으로 일차 정리되는 주요한 분기점이었다.³⁵⁾ 이를 반영한 농지개혁은 헌법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대원칙을 어떤 핵심적 목표 하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조봉암은 토지개혁의 핵심 사안을 소작제도의 철폐로 보았다. 그는 토지개혁의 핵심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자 이를 ‘소작제 폐지’로 간단히 정리해 버렸다. 그는 국회에서 ‘농지개혁’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³⁴⁾ 조봉암, “나의 정치백서,” p. 392;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p. 165.

³⁵⁾ 방기중, “농지개혁의 사상 전통과 농정이념,”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p. 116.

했다. “소작제도라는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예요. 없애 버리자는 것이예요. 이것이 개혁이예요. 개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문자가 결코 무서운 문자가 아니예요. 그런 까닭에 소작제도를 없애고 우리나라의 봉건적인 사회조직을 근대적인 자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올시다.”³⁶⁾

이 간략하면서도 거침없는 주장은 조봉암의 농지개혁에 대한 인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농지개혁의 목적이 단순한 봉건적 경제체제 해체가 아니라, 한국의 “봉건적인 사회조직”의 해체의 문제이자, “근대적인 자본주의 제도”의 형성의 문제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그 봉건적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소작제도의 폐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 농림부장관 조봉암은 농지개혁 법안의 작성과 실행을 서둘렀다. 실무총책이었던 농지국장 강진국에 의하면, 조봉암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농지개혁을 하루라도 서둘러야겠으니 빨리 법을 만들어 내라”고 독촉했다.³⁷⁾ 그 결과 최초로 서둘러 계획된 농지개혁안은 강진국의 표현에 따르면, “농토의 유상매수도 아니고 무상흡수도 아닌, 즉 적당한 보상을 주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식의 무상몰수·무상분배도 아니고, 유상매수·유상분배도 아닌 또 다른 ‘제3의 길’을 채택하려는 것이었다.³⁸⁾ 조봉암은 무상분배 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북한의 방식이나, 상환액이 15~20%에 이르는 유상분배 방식 모두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지주와 농민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자 했다.³⁹⁾

36) 국회사무처, “제2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69호,” 『대한민국 국회 제2회 정기회의 속기록』, p. 8.

37) 동아일보, 『비화 제일공화국』, 1권 (홍자출판사, 1975), p. 314.

38)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pp. 474~476.

그러나 조봉암은 위와 같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현실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1949년 2월 조봉암은 양곡수매에서 정부 측의 강권발동 조치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사임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⁰⁾ 국회의원 최태규는 조봉암의 사임과 관련해 “토지개혁을 목살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 민중의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 조봉암의 지휘 하에 작성된 최초의 농림부안은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조봉암이 주장한 제3의 길이 완전히 사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과 지주보상을 15할 개정 농지개혁법안을 1950년 3월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⁴¹⁾ 이후 한국 정부의 농지개혁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빠르게 유상매수·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완료되어 갔지만, 영농개혁과 이를 주도할 농민조직 창출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지주제 농업체제를 자본주의 영세소농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⁴²⁾

조봉암 생전의 사회민주주의적 경제 노선은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 창당대회에서 발표된 당 강령에 집대성되어 있다. 진보당 강령은 경제적 부분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강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자기 수정 노력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결코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민주적 복지사회의 건설이 자본주의의 자기 수정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대중을 대표하는 변혁적 주체적

39) 국회사무처, “제2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57호,” 『대한민국 국회 제2회 정기회의 속기록』, p. 15; 강진국, “남한농지개혁의 전망,” 『민성』, 1949년 3월, p. 16.

40) 김성보, “이승만정권기 양곡유통 정책의 추이와 농가경제 변화,” 『한국사연구』, 108호 (2000), p. 157.

41) 박진영,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 『대구사학』, 제123호 (2016), p. 19.

42) 정진아, “제1공화국 초기(1949-1950)의 경제정책 연구,” 『한국사연구』, 106호 (1999), pp. 252~259.

세력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자기 수정 노선이 “민주주의적 평화적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변혁을 달성하여야 할 우리의 근본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입장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⁴³⁾

진보당은 선진적 경제 건설을 위해 “넓은 자유민주주의=자유자본주의적 방식은 무력하고 무효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해하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불세비즘적 방식과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을 단호히 배격하여,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사회민주주의=계획적 민주주의’의 방식과 원칙에 의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⁴⁴⁾ 진보당은 자신의 최대 강령으로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분명하게 내세웠고, 1950년대 후반 한국전쟁 직후의 극우 반공주의적 사회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비자본주의적이고 비공산주의적인 ‘제3의 길’을 직접적으로 표방했다. 이를 통해 이승만 극우 반공체제의 정치·경제적 한계를 한 번에 뛰어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그 같은 진보당의 이상은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죽음과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2. 평화통일론의 전개

냉전과 남북분단이라는 양극적 질서 속에서 중도적인 ‘제3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온갖 사회적 비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해방공간에서의 여운형은 그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여운형은 좌우 양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받다가 끝내 우익 청년의 테러에 의해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리고 조봉암 또한 양극적인 한반도 냉전과 분단체제 속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통일

43) “진보당 창당대회,”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 전집』, 4권, p. 64.

44) 위의 글, p. 95.

노선을 주장하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은 남북통일론의 당연한 전제인 평화통일론이 조봉암 죽음의 결정적 이유였던 것이다. 이 같은 불행한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조봉암은 원래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지만,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사회와 민족에 대해 눈떴고, 일본 유학시절에는 아나키즘에 먼저 매혹되었지만 불세비즘이 한국 독립운동을 후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주저 없이 공산주의자가 되고자 했다. 해방 이후에는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소련 의존적이라는 이유로 전향을 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된 후에는 1948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민족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가 통일 담론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195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해방 직후부터 일관되게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명확하게 주장해오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46년 전향 이후 조봉암은 김규식 등의 중도세력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좌우합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국회의원으로 동참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북통일을 부르짖고 있었다. 이를테면 조봉암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7월 24일 국회의원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평화통일론을 개진하기도 했다.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루 속히 평화리에 통일을 완성**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것은 잘됐든 못됐든 각색 국민을 대표했다는 기관인 만큼 그 어느 기관보다도 진지한 통일에 대한 공작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요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요구도 클 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에 있어서도 이 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농후해져서 이 앞으로 **국회 안에서도 통일촉진기관을 따로 설치**하여서 전적으로 그 문제를 취급할 것이고 동시에 **국민으로서도 남북통일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국회와 국민운동이 표리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 국민의 이런 운동을 적극 조장하고 협력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⁴⁵⁾ (강조는 인용자)

위의 글은 조봉암의 5·10선거 참여가 결코 남북 분단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조봉암은 냉전이라는 국제적 갈등 상황 속에서 남북분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조국의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대립적 현실에 직접 뛰어드는 ‘참여적 방식’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국회 내의 통일촉진기관 설립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통일운동도 “적극 조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1950년대 조봉암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인식에는 ‘한국전쟁’과 국제적 ‘냉전’ 질서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을 경험한 이후, 조봉암은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성에 기초한 통일이 아니라 ‘반전(反戰)’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우선 진보당 강령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은 “크레믈린의 적극적인 팽창 정책으로 말미암아 점차로 격화되고 있던 양대 진영 간의 냉전”이 “한국에서 국지적 열전으로 화하였”던 역사적 사건이었고, “크레믈린은 그의 소위 평화정책을 내세우면서 그 자신의 평화 애호성을 극구 선전하였지만 그는 최악적 한국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잔인 무비한 폭력적 성격과 무력적 팽창주의 정책을 사실로 증시(證示)”하고 만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한국인들은 이 처참한 전쟁을 통해 “폭력적이고 독재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었다.

조봉암과 진보당은 소련과 북한의 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 추호의 의구심도 없었고, 한국전쟁이라는 파괴적 현실의 체험을 통해 무력적 주장에 의한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봉암

45) 『민정』, 1948년 9월호,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pp. 51~52.

과 진보당은 한국전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히려 평화와 사회적 복지 국가 건설의 필요성으로 연결시켰다. 진보당은 “한국 민중은 그들 자신의 처절 심각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의 정치적 사상적 확신”, 즉 “사회적 민주주의만이 우리 민족을 자유와 진보와 행복에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⁴⁶⁾

국제적 냉전 상황에 대한 인식도 조봉암의 평화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1954년에 작성된 “우리의 당면 과업”이라는 조봉암의 글을 살펴보자.

소련 측은 평화산업의 증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소위 평화공세를 취함으로써 전비 강화의 시간 획득과 철의 장막의 강화를 위하여 초려(焦慮)하는 꼴이 현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 최근의 백림 사상(四相)회의에 있어서도 평화론과 소위 공존공영론을 입으로는 제법 장식했던 것이다. (...) 미국의 존재는 20세기 자유주의자들의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으나 크레믈린의 세계 침략의 야망은 날이 갈수록 도를 가할 것이며 그자들의 평화의 ‘탈’은 내부 정리와 전쟁에의 시간 쟁취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치적 해결이 요원할 것임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⁴⁷⁾

이 글은 조봉암의 냉전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20세기 자유주의자들의 희망의 원천”이고, 소련은 “전쟁에의 시간 확보를 위해 평화공세를 취하는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특히 1948년 이래 전 세계 진보적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소련의 ‘평화공세’에 대해 “전비 강화의 시간 획득과 철의 장막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평화의 탈”이라는 표현도 흥미롭다.⁴⁸⁾ 조봉암은 소련과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진영을 완벽하

46) “진보당 창당대회,”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 전집』, 4권, pp. 74~78.

47) 조봉암, “우리의 당면과업(1954),”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p. 178.

게 불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은 상호 인정을 전제하는 평화통일론만이 당대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통일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렇듯 그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배경에는 전쟁이라는 직접적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분단체제’라는 한반도의 구조적 폭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분단이 남북한 모두에서 정치·경제·일상생활까지 포함한 전반적 현실을 제약하는 하나의 체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분단 상황을 활용해 자신의 배타적 이익을 배가시키려는 세력이 남북 모두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의 발현이었던 것이다.⁴⁹⁾

조봉암은 남북한에서 공히 자신의 정치·사회적 권력의 강화를 위해 사실상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들이 약소민족의 해방을 부르짖고 분노계급의 이익을 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독재 지배자들이 얼마나 흉포하게도 모든 인민들을 착취하고, 모든 인민들을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지 신랄하게 성토했다.⁵⁰⁾ 동시에 그는 남한 지역에도 “대공 승리를 절규하면서도 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한 민주세력 강화에는 전연 관심이 없고”, “국가를 들어 편협한 파당의 싸움터로 만들기에 바쁘”며, “민주주의 수호를 부르짖으면서도 민주 발전을 저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같은 “권력의 무질서한 남용”은 부지불식간에 “민주주의를 거세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경고했다.⁵¹⁾

48) 냉전 초기 소련의 평화공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김태우, “사회주의진영의 평화론과 북한,”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아카넷, 2013).

49) 분단체제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백낙청, 『분단체제와 변혁의 공부길』(창작과 비평사, 1994).

50) 조봉암, “광복절 기념사(1956),”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p. 158.

이 같은 당대 한국 극우 반공세력에 대한 조봉암의 비판과 평화통일론의 전개는 필연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행위는 적대적인 적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전쟁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뒤흔들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군사적 수단을 통한 북진통일론을 여전히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 같은 이승만에게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통일정책이란 자신의 존립 기반인 분단체제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조치였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었다. 양극적인 국제 냉전 질서 하에서 전쟁을 겪은 남한의 사회민주주의 수용도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평화적 통일 주장조차도 당시에는 소통 불가능한 주장에 가까웠던 것이다.

IV. 맺음말

현대 평화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갈통에 의하면, 평화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에 반대하는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같은 구조적 폭력에 반대하는 '적극적 평화'의 문제의식을 포괄할 때 진정으로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한국 근현대사에 빚대어 말하자면, 한국전쟁이나 제주 4·3학살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일제의 민족차별 정책이나, 지주층의 경제적 착취, 혹은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비국민(非國民)으로 설정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적 차별 등에 반대하는 '적극적 평화'의 문제의식까지 포괄해야만 '평화'가 달성 가

51) 조봉암, "우리의 당면과업(1954),"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 전집』 1, pp. 176~177.

능함을 뜻한다. 또한 갈등은 위와 같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통합’의 실천을 적극적 평화의 핵심 가치로 강조했는데, 1950년대 극우 반공적인 한국사회에서 통합의 실천 또한 현실적 평화의 달성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가치의 추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조봉암의 인생 역정과 개인적 사상은 그를 적극적 평화운동가이자 평화사상가로 평가하기에 손색없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일제의 감옥 안에서 혹독한 고문과 감금이라는 직접적 폭력의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신했던 공산당 활동 속에서 일제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구조적 폭력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 서적의 탐독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강도 같은 침략과 민족적 수탈이 어째서 생기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제의 구조적 폭력의 실체와 적극적 평화 추구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의 다른 표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일제의 민족적 수탈의 구조를 깨달은 젊은 청년의 적극적 평화의 갈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직후 현실정치인 조봉암의 정치활동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저항한 적극적 평화운동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봉암은 제헌국회의 국회의원이자 헌법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당대의 착취적이고 차별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해 분투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헌법기초위원으로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생활의 기본적 수요, 토지개혁 등과 같은 진보적 경제조항의 정초에 주력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토지개혁의 현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 같은 모습은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한 구조에 저항했던 적극적 평화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게다가 그는 적극적 평화의 중요한 구성 개념 중 하나인 ‘통합’의 가치를 좌우합작운동과 평화통일론으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했다. 조봉암은 냉전과 분단의 양극적 현실 속에서 차별적이고 대립적이며 폭력적이었던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완전한 적극적 평화주의자였다.

심지어 그는 극좌와 극우세력뿐만 아니라 중도세력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제3의 길’과 ‘통합’의 가치를 현실정치 속에서 실천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헌법기초위원으로서, 농림부장관으로서, 진보정당의 당수로서 표현 그대로 악전고투(惡戰苦鬪)했다. 조봉암은 1950년대 극우 반공적 정치현실 속에서 표현 가능했던 적극적 평화론의 최대치로서 사회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달성을 주장했고, 그에 대한 폭력적 대가로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죽음은 1950년대 ‘전쟁정치’에 의한 ‘평화정치’의 희생과 좌절에 다름없었다.

■ 접수: 2017년 5월 1일 / 심사: 2017년 5월 4일 / 게재확정: 2017년 6월 1일

【참고문헌】

- 김동춘. 『전쟁정치』. 서울: 길, 2013.
- 김명섭. “흑도회의 결성과 활동(1921~1922).” 『사학지』, 31호 (1998).
- 김성보. “이승만정권기 양곡유통정책의 추이와 농가경제변화.” 『한국사연구』, 108호.
-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청계연구소, 1986.
- 김태우. “사회주의진영의 평화론과 북한.”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아카넷, 2013.
- 김학준. “진보당 평화통일노선의 재평가.” 정태영 외, 『죽산 조봉암 전집』 6권. 세명서관, 1999.
- 박진영.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 『대구사학』, 제123호 (2016).
- 박태균. 『조봉암연구』. 창작과비평사, 1995.
- 방기중. “농지개혁의 사상 전통과 농정이념.”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 백낙청. 『분단체제와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1994.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하)』. 역사비평사, 1999.
- 윤상현. “조봉암(1899~1959)의 정치활동과 사회민주주의사상.” 『한국사론』, 52호 (2006).
- 장 아메리 지, 안미현 역. 『죄와 속죄의 지평: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 길, 2012.
- 정진아. “제1공화국 초기(1949-1950)의 경제정책 연구.” 『한국사연구』, 106호 (1999).
- 정태영 외 편. 『죽산 조봉암 전집』 1권. 세명서관, 1999.
-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후마니타스, 2006.
- 하원호. “근대사회성격론.” 『한국사 길잡이(하)』. 지식산업사, 2008.
- 홍 빈. “죽산 조봉암은 왜 죽어야했나.” 『신동아』. 1983년 3월호.
- Galtung, Johan. “An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 Issue 1 (1964)
- Galtung, Johan. *Theories of Peace: A Synthetic Approach to Peace Thinking*.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1967
- Galtung, Johan.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Issue. 4 (1968).

A Study on the Idea of Peace of Cho Bongam: from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Kim, Taewoo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article reevaluate the life and political activities of Cho Bongam, a famous Korean politicians in 1950s,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of Johan Galtung. Positive peace is an idea against not only directive violence like war, abuse, and confinement, but also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like political oppression and economic exploitation. In fact, Cho devoted most of his life to political activiti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resistance against structural violence of world capitalist system and division system of Korean peninsul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Cho actively chose the life of independence fighter from his individual experiences and understanding of the violence of imperialism.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he struggled for the reform of discriminative social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 committee member of the found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partment. He contributed to making progressive economic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made ceaseless efforts for the realization of land reform. Cho was typical advocate of positive peace who resisted soci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in Korea. Furthermore, he continuously made much efforts for the coalition of the left and the right of Korean politics, and was sentenced to death because of his political activities to realize the ideal of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efforts can be directly connected with Galtung's idea of 'integration' in his explanation of positive peace.

Key words: Cho Bongam, Peace, Positive Peace, Structural Violence, Imperialism, Socialism, Social Democracy, Integration, Peaceful Unification.

김태우(Kim, Taewoo)

한국의국어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계간지 『창작과 비평』과 『역사와 현실』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폭격』, 『평화를 걷다』,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폭력이란 무엇인가』(공저), 『분단폭력』(공저) 외 다수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